

# 광주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조성 본격화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다음달 착공 내년 12월 완공 예정 398억 들여 한옥·경관단지 등 조성

국립공원 무등산 원호사 지구 이전 대상지인 광주 북구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무등산 원호사 이주단지 조성을 포함한 북구 충효동 일원 14.3만㎡에 대한 생태문화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도시개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으며, 각종 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했다.

사업은 충효동 일대 14만3000㎡ 부지에 원호사 지구를 이주시키고 무등산-광주호 생태문화원·가사문화원과 연계한 생태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3월 착공,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 북구 충효동에 들어설 생태문화마을 조감도.

생태문화마을에는 사업비 398억원을 들여 상가(56세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센터(6800㎡), 경관단지(3만9325㎡), 퓨전 한옥 숙박시설, 생태·체험단지, 주차장, 공원 등이 들어선다. 원호사 주변 상가 52곳·주택 2곳에 거주하는 상인·주민들은 생태문화마을이 완공하고 이주할

예정이다. 이주민들은 생태문화마을에 조성하는 상가·주택의 분양권을 받는다.

1980년대부터 원호사 주변에 자리 잡은 상가·주택 등 집단 시설이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2013년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이전 사업을 추진했지만, 난개발, 상업시설 확보 등 논란으로 전착을

보지 못했다. 신재욱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은 가장 광주다운 것인 무등산, 광주호, 광주호수생태원 등 천혜의 자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광주호와 가사문화원이 어우러지는 생태문화 마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980년대부터 원호사 주변에 들어선 식당 등 집단 시설은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 소상공인 부담 덜어줄 '광주 공공 배달앱' 뜬다

### 4월 시범 운영 7월 출시 광주시, 위메프와 협약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광주형 공공 배달앱'이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출시한다.

광주시는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위메프 등과 공공 배달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경제 고용진흥원, 광주은행, 광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광주 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도 협약에 참여했다.

공공 배달앱은 개발·운영 주체인 민간의 전문성과 지자체 지역화폐의 공익적 요소가 결합한

형태다. 소상공인이 지불할 가입비, 광고료가 없으며 중개수수료 2% 가운데 절반은 쿠폰이나 포인트 등으로 소비자에게 되돌려준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는 민간 배달앱과 큰 차이가 없으나, 최대 10% 할인하는 광주 상생카드도 배달앱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장보기 기능으로 전통시장 상품을 온라인 주문·결제할 수 있다.

광주시는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 소상공인,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7월 1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공공 배달 앱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이 되도록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전남도, 대상자 모집

전남도는 올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접수에 들어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도내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청년들이 공동으로 적립 통장을 개설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9일까지 1431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이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가입을 희망한 청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세방리튬배터리 광주에 1150억 공장 첫 삽

### 평동에 전기차 배터리팩 6월 준공 연간 42만대 모듈 생산

광주시가 올해 첫 투자유치 사업으로 1150억원 대 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세방리튬배터리는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 2차 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1월 6일 광주시와 협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성사된 광주의 올해 첫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세방리튬배터리는 자동차 빌트인 카메라의 보조 배터리,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제작 분야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2만9000㎡ 부지에 1150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3000㎡ 규모 공장을 건립한다.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

출하지 않는 친환경 조립 공장으로 조성된다.

오는 6월 준공해 시험 운영 기간을 거치고 내년 3월부터 연간 42만대의 배터리 모듈을 생산한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일자리 250개가 생길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세방리튬배터리는 신철 공장을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평동 2차 산업단지 인근 빛그린 산단에 오는 7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센터를 준공하고 '광주형 일자리' 공장인 글로벌모터스도 생산 설비를 갖추면 이 일대가 친환경 차 메카의 위상을 굳힐 것으로 기대했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투자 결정에 이어 기공까지 신속하고 과감한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며 "세방리튬배터리가 광주공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물류비 154억 지원

### 여수·완도 등 7개 시군 122개 섬

전남도는 제주 여객선 열악한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객 차량 운임과 생필품 물류비, 생활연료 운송비로 총 154억원을 지원한다.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섬 주민이 여객선을 탑승할 때 최소 50%에서 최대 88%까지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목포, 완도, 여수 등 7개 시군 122개 섬 주민들에게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금은 여객운임에 따라 구분돼 운임 8340원 미만의 경우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8340원 이상에서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등으로 구간을 나눠 도서민들이 각각 5000원, 6000원, 7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도서민이 여객선에 차량을 싣고 갈 경우 배

기량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량 선적 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37억원을 편성했다.

1000cc미만 승용차와 5t미만 화물차는 선적운임의 50%, 1600cc미만은 30%,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 이하 승합차는 2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활연료, 식료품 등 육지보다 비싼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섬주민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7억원의 해상물류·운송비도 지원한다.

강성운 전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섬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되어주는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생필품 등 물류운송비 지원으로 섬도 육지와 똑같은 공정가격을 실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정가**

**도내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도비 지원길 열려**

**이보라미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전남지역 산업단지에 신설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 등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각 시군이 설치·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와 관련해 세탁시스템 구축, 작업복 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 시설 운영 비용을 전남도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준비 중인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에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전남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동자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생적인 작업복을 입을 권리가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확산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